


<div>교훈: 정직</div> <div></div>	가 정 통 신 문	제2020-056호
		담당: 교무기획부
	<div>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성폭력 · 학교폭력 예방 안내</div>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71 ☎ 031-316-8712

##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안내 □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통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교육반(특수학급)을 1학급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통합을 목표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작은 예비사회입니다. 통합교육은 장애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받도록 하는 교육 방식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통합교육을 통해 비장애 또래집단과 지내며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고, 비장애 학생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약간의 불편함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수용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언어·신체적인 폭력이 발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 괴롭힘 등의 금지’(제 32조)조항에 의거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장애 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함께 하는 학교생활은 우리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0. 6. 2.

시 흥 매 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 관련 안내 □

‘성교육,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성교육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전달하는 일상에서의 생활교육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옷을 벗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예절교육이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것을 배우는 안전한 삶을 위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교육은 평생에 걸쳐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TV를 보다가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다른 채널로 돌려버리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부자연스럽게 외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런 행동이 ‘부끄럽고 민망한’ 것으로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性)에 대한 인식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 교육은 따로 하고 있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만약 딸아이가 같은 반에 있는 지적장애 남학생이 아이의 가슴을 만진다고 이야기해오면 어떨까요? 뭘 모르는 애가 한 건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을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고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 아이들도 성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모르고 했던 일이라면, 장애인에게만 면죄 부를 주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이런 난감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성행동이나 성적 놀림 등, 일상생활 중 부적절한 성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에서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처음 성행동이 나타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앞으로의 성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에, 만들어져가는 시기이기에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월경이나 몽정 등 성장에 관련한 교육은 자녀의 신체나 연령 등 성숙도에 맞는 가까운 시기에 교육함으로써 아이들이 다가올 신체적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성(性)은 일상생활에서 이뤄질 때 가장 자연스럽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性)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야기 하기 싫어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열린 생각을 하는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성(性)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진정한 성(性)교육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내가 어땠다’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함께 어울리는 탁 트인 세상’ 중에서 부분 발췌

2020. 6. 2.

시 흥 매 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